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에는 '96년도 제1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교회의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가 공적으로 거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례라고 한다(제3면 참조). 우리교회에서는 올해 세례식은 6회(2월 2일, 4월 12일, 6월 14일, 8월 2일, 10월 11일, 11월 22일), 성찬식은 4회(3월

10일, 6월 16일, 9월 8일, 11월 24일)를 거행하는데 예정대로 제1차 세례식은 지난 2월 2일(금)에 있었고, 오늘 제1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찬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자기를 살피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속한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이것의

외적 기준으로 세례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밖의 불신자나 어린이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한 악하고 불경건하고 무지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참된 신자라도 자신의 영적 생활의 상태나 생활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여야 하겠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

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고전 11:28-29).
그러므로 오늘, 금년들어 첫번째로 거행되는 성찬식에 우리는 성찬의 의의를 바로 알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며 이 성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제1차 성찬식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을 살피 회개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며 참여해야

제3회 양육위원수련회

3월 11, 12일 양일간, 베다니홀
강사에 송태근 목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등록된 새가족들을 정착시키고, 천국 일꾼으로 양성하는 데 그 비결이 있다. 따라서 이 일에 부름을 받아 새가족들을 보살피며 섬기는 양육위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 이에 양육위원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하여 새가족부에서는 실무 교육을 겸한 '제3회 양육위원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모든 양육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주제 : 소명의식이 불타는 양육위원이 되자

일이 되자

- 일시 : '96. 3. 11(월) ~ 3.12(화)
오후 6:00 ~ 9:50
- 장소 : 충현교회 베다니홀
- 대상 : 새가족부 양육위원
교구양육위원
각 교구 전도회 회장
- 강의내용 : 첫째날 '양육위원의 소명의식과 헌신', 둘째날 '새가족 양육과 관리'
- 강사 : 송태근 목사(충신대학원 졸업, 강남교회 담임목사)

청년1부

3월 24일(주일), 결혼 특강
4월 5일(금), 통독 수련회

교회학교 청년1부는 3월 24일(주일) 오후 1시 청년부 집회실(교육관 514호)에서 이두란 원로전도사를 모시고 결혼 특강을 실시한다. 청년1부 전 회원과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또한 4월 5일(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청년1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통독수련회를 갖는다. 신약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청년2부 거울수련회

교회학교 청년2부에서는 제6회 거울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청년2부 모든 회원들과 청년2부에 해당하는 성도들, 또한 은혜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일시 : '96. 3.11(월) ~ 3.12(화)
오후 6:00 ~ 9:00
- 장소 : 갈릴리홀 및 만나홀
- 주제 : 제자도와 청지기직
- 강사 : 김경진 목사(기독교대학교 신학과 신약학 교수)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7일(목) 정오부터 3월 12일(화) 정오부터 제4교구,
3월 12일(화) 정오부터 3월 17일(주일) 정오까지 제5교구가



교역자 수련회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역자수련회가 설악산에서 있었다. 오전 9시, 김찬곤 목사의 기도로 출발한 버스가 춘천, 홍천, 인제를 지나 미시령에 들어섰을 때부터 모두의 환호성 속에 내리기 시작한 함박눈은 미시령 중턱 어느 횡단교차로 앞에서 모두의 발을 묶어 놓을 만큼 폭설로 변해 있었다. 다시 버스를 돌려 진부령을 통과해 간신히 도착한 눈속에 덮힌 설악산. 수련회 시작하던 날의 풍성한 눈만큼이나 은혜풍성, 말씀풍성, 기도풍성, 교회성장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과 먹을 것, 볼 것까지 풍성한 넘치는 수련회였다.(사진은 설악산 권금성에서 즐거운 한 때)

정신지체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에서 일할 생활보조원 모집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인들을 돌보면서 함께 생활할 생활보조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여성으로 40세 미만의 독신

1. 생활보조원 자격
① 24시간 그룹홈에 동거가 가능한 자 ② 전염성 질환이나 또는 신체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 정신지체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이해하고 가사 처리 능력이 있으며 수용적인 태도와 건전한 사고를 가진 기독교인 ④ 학력은

2. 서류접수
• 기간 : '96. 3. 18(월)까지
• 장소 : 충현복지관 ☎ 564-4885
3. 제출서류
① 이력서
② 졸업증명서
③ 자기소개서

동서울노회 제49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고시 청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전도사고시 청원 ③ 강도사고시 청원 ④ 신학계속 추천 청원(충신대학 및 충신신대원 재학생) ⑤ 목사후보생고시 청원(충신대학 신학과 입학 지원자,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제출마감 : 3월 17일(주일)까지
- 접수 및 문의 : 교회 사무국 총무과(☎ 552-8200(402), 563-2339)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시 16:1-11)

구 국공신 다윗 장군이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던 역적으로 물리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궁궐을 떠나 도망을 다니는 기가 막히는 처지에 처하였습니다.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하던 친구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인간적으로 너무 외롭고 위태로워질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다윗 장군의 신앙간증은 성공의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1. 다윗이 받은 복이 어떠한가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8형제 중 막내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많았으니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도 막내 아들쯤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귀염둥이가 못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천덕꾸러기 비슷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을 하고 나니 일곱 형님들이 성공한 것 못따 한데 못어 보아도 막둥이 다윗이 성공한 것의 100분의 1도 못따라 갑니다. 다윗은 만고에 놀라운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양치던 목동인 줄만 알았더니 칼을 한번 뽑아들면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다윗이 거문고를 켜면 따라올 자가 없는 대음악가입니다. 다윗이 한번 붓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의 문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대문호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같이 훌륭한 시가 이 땅위에 다시 나올 수 없을만큼 그는 시성(詩聖)입니다. 다윗의 명예는 최대 최고의 명예로서 날이 갈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커집니다. 보통 사람은 세상 떠난 후 20년 못가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님의 이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신약성경 첫장 첫절에 다윗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우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명예를 가졌습니다. 다윗의 재산은 건줄자가 없는 큰 부자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성전을 지어라 내가 성전 짓기 위해 모든 것 준비를 많이 했다. 이 성전 벽은 금으로 발라라. 그 금은 내가 다 준비했다" 했으니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2.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도망다니는 때와 신앙간증을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주박에는 복이 없는 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박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 16:1-2)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지옥의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주박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 하나님 한 분 모시면 모든 복을 소유한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의 웅덩이에 빠진 절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임금님으로서는 반역자가 되어 궁궐에서 내쫓겼지만 하나님의 품안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명예도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간증입니다.

(2)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 16:3)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며 삽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행복되고 좋은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롭고 괴롭고 슬픔입니다. 유유상종이라, 사람들은 교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돈 많고 세력 높은 사람을 많이 알면 그것도 좋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없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인물이야 잘났는지 못났는지 간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손해 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때문에 소경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과 교제하면 어떤 때는 이가 나는 듯 싫어도 영육이 아울러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땅 위에 살면서도 사람 앞에 신용시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과 교제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시다"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가 되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절도 보고 손금도 좀 보는 이런 것은 노선이 확정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과는 교제 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음란자이기에 교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를 바로 사귀어야 합니다. 다윗의 대인관계가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의 복을 주셨습니다.

(3)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세나이다 내게 줄로 제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 16:5-6)라고 했습니다. 땅 위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구름처럼 사라지고 꿈처럼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배제로 모시고 자기의 책임에 맡겨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줄로 제어준 구역에 있어 언제든지 그것을 받습니다. 받으

다윗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주전(主前)의식(主前意識)이 분명한 사람은 삶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잘났다고 교만하면 잘된 것도 없이 마귀의 활약을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뒤에 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뒤에 있어서 게을러서 잠들고 말았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면 영육간에 남에게 주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돈은 내 맘이 묻은 돈이요 적든지 많든지 내 보배이지만, 남의 눈물이 묻고 남의 피가 묻은 돈은 적든지 많든지 내 가정에 무서운 독약입니다. 이렇게 다윗 장군의 재산관이 너무 깨끗합니다. 불의한 돈에 일질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금으로 입힐 만큼 재산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4) 자신을 돌아보는 신중함입니다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 16:7)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룻밤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내가 오늘 바로 살았나' 한번씩 검토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밤마다'라는 말은 누구도 안보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로 어렵고 깊이 안보이는 기가 막히는 괴로운 때를 말합니다. "나를 혼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불렀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래도 안들으면 몸에 질병이 오고, 사업의 실패가, 파산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이 올 때에, 잘못이 깨달아지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5)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좌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 16:8)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주전(主前)의식(主前意識)이 분명한 사람은 삶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잘났다고 교만하면 잘된 것도 없이 마귀의 활약을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뒤에 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나님의 뒤에 있어서 게을러서 잠들고 말았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다윗의 우편에 계시니 다. 하나님의 거리가 항상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의 일생이 하나님을 거울로 삼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측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에 우편에 계시니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림에 없는 단단한 벽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 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9-11)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어도 영혼이 음부에 가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간에 죽을지 모르는 사고당어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내 영혼은 천국에 가고, 내 육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한다. 땅 위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삼동 하숙집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루 더 사는 것이 더욱 좋다' 나는 죽음에 대해 비굴해본 적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입니다. 죽는 것이 무서우면 신앙생활은 끝난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다윗이 성공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자가 되어 천대 받기를 원하지 않고, 복받은 자가 되어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권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시간에 친구가 만 명 있어도, 왕의 권세를 가져도 지옥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랑받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없이 세상에 살면 마귀의 종이고, 지옥의 죄수네,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시고 살고, 일할 때에 하나님 모시고 일하고, 죽을 때에 예수님 손 붙들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는 일생을 삽시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되돌아 보시고 계산을 쓰고,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에 가게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윗처럼 복을 받아, 하나님을 높이고 만민에게 칭찬을 듣고 영육에 모자람이 없이 사시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때리에도 다윗이 쓴 연필관을 쓰기를 소원합니다.

◆ 성찬에 바로 참례하려면 ◆



성찬에 바로 참례하여 증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삽시다

현 상 민

(목사, 예배위원회, 제7교구 지도)

교회의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가 공적으로 지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성례라 한다(마 28:19; 눅 22:17-20; 고전 11:23-26).

우리교회에서는 세례를 1년에 6차례 거행한다. 오늘 참례하는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성찬에 바로 참례하여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성찬의 제정에 대하여 성경은 네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마 26:26-29; 막 14:22-25; 눅 22:17-20; 고전 11:23-26). 성찬 곧 주의 만찬(Lord's Supper)은 성만찬(communion) 또는 성찬식(eucharist)이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려는 데 있다.

1. 성찬의 의의

성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즉 성찬이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바 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포도즙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찬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을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며 주님의 재림시까지 그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

과연 성찬은 신령한 예식이며 신비스런 예식인 동시에 유익한 예식임에 틀림이 없다. 성찬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이며 기억하고 회고하고 증거하는 예식이다.

2. 성찬의 본질

(1) 주의 만찬이다

이 만찬식에는 주님 외에 그의 제자들이 둘러 앉았다. 그러나 그 만찬의 주인공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만찬을 마련한 분이 주님이시고, 그 만찬의 목적이 바로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만찬의 주인공, 그 만찬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어야 한다.

만찬이란 하루의 고달픈 일과를 마친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서로 위로와 휴식 그리고 즐거움을 나누는 식탁인 것처럼 주의 만찬은 주님을 섬기는 데 수고한 신자에게 휴식과 위로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예식인 것이다.

(2) 성별된 만찬이다

흔히 성만찬 혹은 성찬이라고 부른다. 이는 이 만찬이 다른 만찬과 엄격히 구별된 때문이다. 만찬의 내용이 구별되었다. 육을 위한 만찬이 아니라 영을 위한 만찬이요, 인간을 위한 만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만찬이요, 세상을 위한 만찬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만찬인 때문이다.

또한 만찬의 장소가 구별되었기 때문

에 성별된 만찬이다. 보통 식당과 가정 만찬이 아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만찬의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만찬의 참례자가 구별된 때문이다. 불신자는 참례 못하는 만찬이다. 사랑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 신자라도 세례교인, 세례교인 중에서도 무흠 세례교인만이 참례하는 만찬이다.

(3) 기념하는 만찬이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이다.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만찬이 아니다. 주님이 나의 죄 위해 대신 죽으신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이다. 기념이란 기억하는 것이고 과거를 현재화하는 것이며, 지난 간 과거 역사를 실체화함이다. 또한 기념이란 이론을 경험화, 체험화함이다.

(4) 먹는 만찬이다

성만찬 예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예식이다. 먹음이란 경험운동, 생명운동, 실체운동이다.

(5) 동참하는 만찬이다

이 만찬에서 세상의 육적인 조건을 초월할 수가 있고, 무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안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에 공동보조를 맞추게 된다. 즉 성찬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며 동참시키며, 교제케 한다. 성찬은 신자와 신자를 사랑과 협동으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연결시키며, 또 동참시키는 예식인 것이다.

성찬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 상호간에 갖는 연합과 친교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 예식에 결코 육체적으로나(천주교의 화체설) 장소적으로(루터의 공제설) 임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적으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칼빈의 영적 임재설). 참신자들, 오직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임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에 관련하여 그를 받으며 먹고 그와 더불어 연합하고 교통한다.

그러므로 성찬의 본질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유익(혜

택)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시키려는 데 있다.

3. 성찬에 왜 참례하는가

(1) 주님이 친히 명령한 때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성찬은 거행해야 하고 참례해야 한다. 주님을 기념함이란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압살롬처럼 자기를 후대에 망각되지 않게 하려고 비석을 사용하는 수도 있다. 안식일처럼 주기적인 날짜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다. 현대 사회처럼 기념도서관, 기념화랑, 기념음악당 등을 건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념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주님은 성찬예식을 제정하셨다.

(2)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의해 새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은혜를 받는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 6:53-56)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할 때 내 심령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기가 있게 되고 적극성이 있게 되며 분발케 되어진다. 그리하여 결국 헌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3) 성도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되는 은혜를 받는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례함이라”(고전 10:16-17)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한 몸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모든 형편과 처지가 천차만별한 성도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로 결속될 수 있으며 또 하나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성찬이다. 모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차를 넘어서 성찬에 참례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인 사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도 이 떡을 가난한 자와 똑같이 먹고, 자유인도 이 잔을 노예와 한가지로 마시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신자가 어떠한 차별없이 하나인 것을 느끼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소망의 생활은 역경을 인내하게 한다. 그 무엇을 대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참고 살아갈 수가 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 재림에의 소망은 한없는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성찬에 참례함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고로, 성찬은 귀한 은혜 중의 은혜인 것이다.

5. 누가 성찬에 참례하는가

오직 신빙성있는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성찬예식에 정당하게 참례할 수 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나 어린이 이들은 절대로 성찬예식에 참례할 수가 없다. 또한 악하고 불경건하고 무지한 사람도 성만찬에 참례시키지 말아야 한다. 참된 신자라도 그들의 영적 생활의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신자들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 성만찬 같은 신령한 행사에 참례할 자격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11:28-29).

6. 어떻게 성찬에 참례해야 하는가

성찬의 의의를 바로 알고 참례해야 한다. 자기를 살피고 참례해야 한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참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례해야 한다. 겸손한 자세로 참례해야 한다. 봉사 자세로 참례해야 한다.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자 뜻을 정하고 참례해야 한다.

왜 주님을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하는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과 관계가 계속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이다.

(2)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요리문답은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즉 말씀 · 기도 · 성례가 그것이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 역할을 하는 고로 은혜의 방편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교요, 효험이요, 대화 역할을 하는 고로 은혜의 방편이다. 그리고 성례는 주님과 연합케 하고, 그 연합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연합을 계속케 하는 고로 은혜의 방편인 것이다.

4. 성찬은 어떠한 은혜를 끼치는가

(1)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는 은혜를 끼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4-25)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회생의 죽음이다. 그런데 이는 비로소 성찬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은혜를 성찬 때마다 기억하게 되며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 그 죽음의 가치가 무한하고 절대적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

◆ 겨울계절학교를 마치고 ◆

아직 중헌교회 영아부를
모르시나요송혜경
(영아부 교사)

우리 영아부에서는 1월부터 겨울성경학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 특별히 성경학교가 열리기 전 주 금요일(23일)에는 교사기도회로 겨울성경학교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서 40여명의 교사들은 각자 맡은 순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를 두손 모아 원하고 원했다.

이번 성경학교는 영아부에서 초등부, 예배당까지 각 부서에서 동시에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 안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다.

우리 영아부에서는 '경건한 예배, 경건한 아기'를 주제로 놓고 박도수 전도사님께서 경건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나, 먹을 때나, 놀 때나, 잠잘 때도 우리 옆에,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드러서는 안된다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은혜스런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주셨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찬송과 율동시간에는 큰북, 작은북, 탬

버린, 피리, 하모니카 등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한 간식시간에는 여부감님과 생지처장님의 정성이 담긴 맛있는 떡과 과일과 과자가 준비되어 천국 잔치의 없어서는 안될 먹거리를 맛보았다. 특히 자랑할 만한 순서는 전도사님의 주선으로 바구니 터뜨리기를 준비했는데, 동심으로 돌아가서일까? 엄마, 아빠들의 반응은 상상외로 좋았다.

첫째날 마지막 시간으로 학부모 특강에는 이두란 전도사님이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다.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전도사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학부모들도 진지했다. 아기를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거든 먼저 가정예배를 드려라는 말씀이었다. 첫째날 영아부에서는 4명의 새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둘째날, 어제의 뜨거운 열기 그대로 40여명의 교사들은 기도회로써 성경학교 둘째날을 열었다. 어제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기도로 매달렸다. 전도사님의 예배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주

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찌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찬송하고 율동하는 시간에는 할머니, 아빠들도 생각 외로 많이 참석하셔서 찬송과 율동을 함께하셨다. 특별활동 시간에는 색종이 찢어 붙이기를 반별로 하는데 아기는 종이를 신나게 찢고 선생님과 엄마는 찢은 종이를 바베 붙이고 해서 근사한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다. 둘째날 역시 학부모 특강이 있었는데 장봉생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 목사님께서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손가락, 발가락 심지어 발톱의 못생긴 부분까지도 닮는다고 하시며 부모님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시간시간마다 넘치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지면에 어찌 다 옮길 수 있을까?

겨울성경학교를 어려운 교통 사정을 이기고 은혜중에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아부 가족은 경건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아기를 어떻게 아기로 키울 것인지 더욱 잘 알게 되었다.

•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직 중헌교회 영아부를 모르시나요? 혹은 알면서도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지요. 순간의 선택이 아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아기를 내 뜻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 9시(1부), 11시(2부)에 선교관 102호에서 영아(0세-만 2세)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겨울성경학교

한사라
(초등4부 중성3반)

참 즐거운 날이었다. 첫째날은 재미있는 퀴즈, 둘째날은 맛있는 간식 만들기, 제일 재미있었던 중헌올림픽.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즐거웠다. 돌아오는 길에는 힘들고 졸렸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기뻐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더욱 잘 알 수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원로목사님께서 오셔서 더욱 신났다. 원로목사님이 줄다리기를 할 때도 도와주셨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찬송과 율동이 신나고 즐거웠다.

한 가지 서운했던 것은 첫째날 성경퀴즈에서 내가 손을 많이 들었는데도 선생님이 잘 시켜주지 않아서 조금 서운했다. 하지만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나날이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찬송도 너무 좋고 율동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찬양대에서는 아주 좋은 노래, 즐거운 노래를 하여서 더욱 좋았다. 다음부터는 더욱더 성경학교때 행동을 잘해야겠다.



'빌레몬서 연구를 통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청년1부 동계수련회가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중헌기도원에서 열렸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청년부 지체들에게는 많은 홍보를 못하여 내심 걱정스러웠는데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준비시키셔서 많은 지체들이 동참하여 같이 은혜받도록 해 주셨다.

내 번의 주제 강해와 함께하는 청년부, 침묵의 시간, 찬양집회, 산기도 등 각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주제 강해를 통하여 공동체의 모습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용서와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화평을 원하는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며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며 사랑을 이해하며 나의 아기를 확실하게 전하는 의식소통으로 신뢰감을 주며 지체들 간에 진정한 동료의식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함께하는 청년부"라는 프로그램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지체들이 서로 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서로를 간에 꼬여 있는 매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 풀어가며 해결해 가는 청년부 공동체의 모습을 배려할 수 있었다.

침묵의 시간에는 다른 지체들과의 대화를 삼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각자 삶의 영역에서 찾으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나에게도 갈증을 해소해 주는 축복한 단비와 같이 다가왔다.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이 많았지만 나의 매일의 생활에서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

을 많이
낼 수 있게
소원해 본다.

용서, 사랑, 섬김을
일깨워준 수련회이혜정
(청년1부 부회장)

을 많이
낼 수 있게
소원해 본다.

우리를 회개와 결단과 감동의 시간으로 만들어준 찬양집회는 한 지체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온 정성과 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현악과 통

소로 찬양할지이다 큰 소리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이다 호호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할렐루야(시편 150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지체들은 팀을 이루어 스카로폴 방석과 담요 하나씩을 들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기도회를 가졌다. 산기도와 경향이 없는 지체들도 있었지만 찬양집회에서 받은 은혜

에 힘입어 모두 한마
음을 품고서
나 라

와 민족,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뜨거운 기도의 열기에도 차가운 바람은 손과 발을 냉하게 만들었지만 차린 발을 아무런 지면에서도 기도에 열중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으리라. 산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어도 아쉬움이 많은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룹별로 또는 조별로 웅기충기 모여 서로 삶을 나누며 합동하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와 눈물이 나왔다. 준비도 미약하고 서툰 것도 많았지만 풍성하게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들의 마음에 감동과 뜨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즐거운 겨울성경학교

백혜수
(초등4부 중성4반)

그날은, 그날은
제일 기대되었던
성경학교 셋째날

올림픽에 있었던
그날, 그날은
줄다리기 과자따먹기
정말 재미있었지

웃음을 애금고
또 하고싶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재미를 떠난 나

하지만 보람있고
활기찬 성경학교
마지막 날